

중국학계가 보는 한국적 리얼리즘의 탄생과 그 연혁

- 최창륵 저 『리얼리즘과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고찰 -

朴香蘭*

〈차 례〉

1. 본질화의 반성과 한국적 리얼리즘 탐구
2. 리얼리즘비평 재해석을 위한 방법론적 대안
3. 프로문학 문예비평의 이론적 접근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최창륵 저 『리얼리즘과 한국 근대문학』은 본질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저서이다. 이는 국제 인문학 분야에서 해체와 '반성'을 주장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탈경계, '자아'와 '타자'의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시기에 중국학계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한국학저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최창륵은 이 책에서 한국 리얼리즘 문학관념의 형성과 발전을 한국문학의 근대적 전환과 관련된 시대적 주제로 보고, 한국문학의 근대적 전환이라는 상위 개념이 이 시기 리얼리즘 문학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국적(朝鮮化)'인 이론특징과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였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비판적 사실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같은 용어로 리얼리즘의 각 단계를 설정하였던 선행연구와 달리 1910년대에서 1928년까지의 리얼리즘문학 비평을 유기적인 통일체로 보고, 이 시기 한국 근대문학의 실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본질주의 사고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으로 저자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이론을 포함한 포스트모더니즘 비평이론, 네오마르크시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비평을 도입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그동안 중국에서 동아시아 근대화를 연구함에 있어 "서양 중심론", "중국문화 우월론"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탈경계를 내세워 주변국가와의 문학교류에 주목을 했던 21세

* 廣東外語外貿大學 亞非語言文化學院 副教授

기 초 학술적 분위기와 맥을 함께 한 것이다. 프로문학연구에 있어서도 단순히 조직운동의 산물로 보지 않고 프로문학의 발화환경(語境), 자연주의 담론, 그리고 프로문학의 탄생에서부터 그 발전과정에서 문인들의 리얼리즘 비평담론에 이르기까지, 프로문학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중국, 한국, 일본의 수용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 발전론적 관점으로 그 시기 리얼리즘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보다 그 시기 문학비평의 근거와 동기가 모두 문인들의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역사주의적 사고방식을 관철한 것이다. 최창록의 이러한 본질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와 실천은 최근 연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단순한 자료소개나 고증연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한국문학의 상관성에 입각하여 지식생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내부의 역동관계를 밝히려려고 하고, 중국문학에서의 한국서사 연구에 있어서도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 고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시종일관 중한 문인들의 문화융합, 운명공동체인식, 동아시아상상의 진면모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통과 융합이 더욱 필요해진 현 시점에 이러한 연대와 상관성에 초점을 둔 연구야말로 동아시아 학계가 가장 필요한 바람직한 연구방향일 아닐까 싶다.

[주제어] 최창록, 리얼리즘, 근대문학, 자연주의

199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비교문학론의 반성과 함께 한국학계에서 제기된 동아시아 한국학방법론은 중국, 한국, 일본을 더 이상 각각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문화권으로 함께 논의할 가능성을 열었고 이러한 지역학적인, 혹은 공동문화권으로 확장된 접근방식은 그동안 꽤 풍성한 성과들을 산출하였다. 그중 중국학계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었던 이론적 접근은 탈경계, ‘자아’와 ‘타자’의 문제, 異域의 상상이 아닌가 싶다. 경계를 벗어나 ‘타자’의 시선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설로 당연시되었던 주장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20세기 후반, 국제 인문학 분야에서도 해체와 ‘반성’을 주장하며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1년 남경대출판사에서 출판된 최창록 저 『리얼리즘과 한국 근대문학』은 바로 이러한 본질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저서라고 하겠다. 즉 기존 리얼리즘 연구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리얼리즘의 탄생과 발전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목적이다. ‘타자’라는 이국학자의 신분의 거리, 또한 역사성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논의된 이 책은 한국 학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기 힘든 고정

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난 담론이라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 한 저서라고 생각이 된다. ‘타자’의 시선에 비쳐진 한국적 리얼리즘은 어떠한 모습인지, 리얼리즘의 역사적 접근방식은 어떠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한지, 본고에서는 이 책의 핵심주장을 중심으로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해당저서는 2002년에 완성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저서이므로 20세기말에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시점의 중국학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1. 본질화의 반성과 한국적 리얼리즘 탐구

리얼리즘 담론은 현재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 다소 시기가 지난 주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저자는 리얼리즘을 여전히 오늘날 조선, 한국문학의 현장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연구과제로 보고 있다. 그 이유인즉 한국 근대문학의 발생과 형성은 리얼리즘 문학관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리얼리즘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문학창작과 문단활동의 주류로서 한국 근현대문학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¹⁾ 연구사를 보더라도 조선의 경우, 고상한 사실주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등이 제창되어 지금껏 문단의 주류, 어쩌면 전체적 흐름이 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60년대의 참여문학, 7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 80년대의 민중, 민족문학운동을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리얼리즘은 큰 흐름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²⁾ 중국학계의 리얼리즘 연구는 풍성한 실증적 작업이 이루어졌고 리얼리즘을 자연주의 틀 속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문학과 관련 속에서, 그리고 한국근대문학 전반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총체적 시야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반면에 리얼리즘 담론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이다. 사회적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학자들의 무의식적인 선

1) 崔昌笏, 『現實主義與朝鮮現代文學』, 南京大學出版社, 2011, 1쪽.

2) 崔昌笏, 같은 책, 3쪽.

입견을 동반하기도 한다. 80년대 연구를 보더라도 사회현실의 본질적 범주로서의 당파성을 리얼리즘의 핵심으로 파악함으로써 프로문학의 리얼리즘비평의 전반 변모를 당파성을 둘러싼 발전과정으로 이해했³⁾으니 말이다. 정치적으로 한때는 한국의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어쩌면 식상한 주제라는 선입견때문에 현재에 와서 더욱 다양한 논의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타자의 시선’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최창득은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기존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리얼리즘에 대한 본질화로 보고 있다. 즉 현재의 입장에서 고찰된 리얼리즘은 특정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미 완성된 이상적 범주로 인식하는 본질주의에 함몰되어, 결국에는 과거의 리얼리즘 비평의 정확성여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광복 전 리얼리즘문학의 각 발전단계에 대해 기계적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는 자연주의-비판적 사실주의-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단계설정도식이 공식화되고 말았다. 즉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리얼리즘이 자연주의, 비판적 사실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선형적인 틀과 의미가 부여된 인지구조에 편입되어 이해되었다. 문학사를 이미 주어진 선형적인 문예이론규범 혹은 이미 장악한 문학발전법칙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취급하는 격이 되고 만 것이다.⁴⁾

이는 탈역사화 담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탈역사화의 리얼리즘 담론은 실천으로서의 문학 현장을 외면하고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을 고착화할 위험을 다분히 지닌다. 또한 상식적인 가설을 앞세워 리얼리즘이 정착되기까지의 복잡한 여정을 시대환경 결정론으로 단순화할 수도 있다.

3)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제1부 프로문학론의 전개양상/제3장 리얼리즘의 성과』,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년.

4) 崔昌笏, 같은 책, 29쪽.

리얼리즘은 문학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적 리얼리즘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시기 문인들이 그러한 여정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복잡다단한 시대적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리얼리즘 문학관념의 형성과 발전을 한국문학의 근대적 전환과 관련된 시대적 주제로 보고 “이 시기 한국 근대문학이론이 어떻게 리얼리즘을 규정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문학의 근대적 전환이라는 상위 개념이 이 시기 리얼리즘 문학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어떠한 ‘한국적(朝鮮化)’인 이론특징과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⁵⁾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구범위도 1910년대부터 1928년까지의 리얼리즘문학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인즉, 이 시기는 초기 한국 리얼리즘문학의 형성과 정착과정을 볼 수 있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문학의 전환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928년 이후의 문학비평, 특히 프로문학 비평은 리얼리즘을 창작수법으로 이해했던 것과 달리 이 시기(1910년대부터 1928년까지) 문학비평은 단순한 문학사조의 시각에서 리얼리즘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외래사조의 수용과 더불어 리얼리즘을 하나의 사조로 인식하는 소박한 문학인식이 형성되었고 리얼리즘에 접근된 문학이론과 그 이론적 틀을 마련해 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리얼리즘문학 이론은 아직 엄격한 미학과 문학이론 의미에서의 이론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창작원리 이외의 외적인 문학유과와 사조개념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⁶⁾

시기적으로도 선행연구에서는 1927년을 한국 리얼리즘발전의 전환점으로 보거나, 20세기 20년대, 20세기 30년대 등 물리적 시간으로 리얼리즘 문학발전의 단계를 구분하여 논의하였지만 저자는 “1927년을 기준으로 한 연구는 그 구분 근거를 카프의 재편성에 두고 있기에 프로문학과 리얼리즘문학을 혼동하는 편향이 있고 물리적 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문학 내적발전의

5) 崔昌笏, 같은 책, 134쪽.

6) 崔昌笏, 같은 책, 3쪽.

특성에 치중한 구분이 아님”⁷⁾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관적 사실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같은 용어로 리얼리즘의 각 단계를 설정하였던 선행연구와 달리하여 1910년대에서 1928년까지의 리얼리즘문학 비평을 형성기라는 유기적인 통일체로 보고, 이 시기 한국 근대문학의 실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1927년을 한국 리얼리즘의 발전의 분수령으로 보거나 1920년대, 1930년대 등 물리적 시간으로 리얼리즘문학의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이다. 1927년을 분수령으로 본 것은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을 고려한 시기획분인 바 이는 프로문학과 리얼리즘문학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프로문학과 리얼리즘문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920년대, 1930년대로 시기를 획분하는 방법은 편의를 위한 외적인 기준일뿐 문학의 발전법칙에 따른 획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최창득은 1928년이후의 문학비평, 특히 프로문학비평은 리얼리즘을 창작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의 리얼리즘은 아직 엄격한 미적 문학적 이론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문학유포나 문학사조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리얼리즘의 형성단계에 대한 고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문학사조론적 시각”에서 리얼리즘문학 비평을 고찰하고 이어 철저한 역사적, 문헌적 고증에 입각한 사실관계 분석에 치중하여 리얼리즘문학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저자는 또한 당대의 문예비평들에서 문예사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핍으로써 그 용어의 출현방식과 의미,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자연주의, 사실주의, 리얼리즘 등 용어에 대한 출처와 의미, 부동한 시기 문인들의 용어 사용 변화를 모두 고찰하여 그 개념 형성의 의미를 파악했던 것이다. 제2장 “문예사조론 시각으로 본 리얼리즘문학”에서는 주로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현시점에서는 자연주의나 리얼리즘으로 볼 수 없는 주장들이 왜 그 시기에는 그러한 용어와 개념으로 등장하는 지에 대한 자세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7) 崔昌笏, 같은 책, 3쪽.

하였다. 저자는 1910년부터 1928년까지 한국문학에서 문예사조론에 입각한 문학비평은 주로 ‘자연주의’에 대한 제창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았으며 “이 시기 문학비평에서 ‘리얼리즘’과 ‘자연주의’ 등 개념이 혼용되었다기보다 ‘리얼리즘’이 아직 ‘자연주의’에서 분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⁸⁾이라고 역설하였다.

선행연구에서 1920년대 초를 한국 리얼리즘문학 이론 발전 중의 자연주의 문학단계로 보고 자연주의 비평에 대한 연구를 1920년대 초반에 국한시키는 범주 확정에 대해서도 저자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행연구에서의 1920년대 중후반 자연주의는 이미 시대적 역할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이 시기 자연주의 문학비평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범주의 설정은 일종의 가설, 즉 1922년이후의 (신경향파문학 출현 이후) 문학은 비판적 사실주의 단계에 진입하였기에 자연주의가 역사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선협적인 관점이며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적어도 1922년 이후 프로문학비평에서는 자연주의가 유효한 담론적 장치로 이용되었고 역사적 추동력을 지녔으며 특히는 창작이론(부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으로 한국문학인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이 시기 이러한 자연주의담론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1929년부터 시작되는 프로문학의 리얼리즘과 그 전시기의 자연주의 문학사조와의 연관관계가 밝혀질 수 있으며 그 발전맥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비약론을 지양할 수 있다.⁹⁾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저자는 “문예사조로서의 ‘자연주의’ 수용”, “‘新舊’ 서술논리와 ‘자연주의’의 위치”, “프로문학의 발화환경과 담론적 장치로서의 ‘자연주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예사조로 받아들여진 리얼리즘문학에 대해 면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8) 崔昌笏, 같은 책, 87쪽.

9) 崔昌笏, 같은 책, 132쪽.

2. 리얼리즘비평 재해석을 위한 방법론적 대안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최창록은 1970~1980년대 리얼리즘 연구는 비록 풍성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리얼리즘의 본질적 특징규명과 의미부여에 주목하다보니 한국의 리얼리즘문학은 본질화되고 역사를 기반으로 한 고증연구가 결핍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질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저자가 찾은 방법론적 대안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이론을 포함한 포스트모더니즘 비평이론, 네오마르크시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비평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이론으로 한국 근대 리얼리즘 용어의 근원과 속성,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재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리얼리즘’을 “하나의 개념과 용어로서 문학대상을 인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에 불과하며 연구자의 경향성과 선협적인식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권력적 담론¹⁰⁾”으로 보았다. 또한 리얼리즘은 “거대담론(metadiscourse)으로서 근대문학의 이론적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표방하는 개념이기에 사조라는 메커니즘 범주에 속하며, 문학사조는 문학의 역사적 형태라는 의미에서 문학의 역사적 존재자체와 동질시됨으로써 자명한 진리로 당위화되었다.”¹¹⁾고 주장한다. 미세한 존재들을 중시하고 절대이념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리얼리즘’의 재해석을 시도한 발언이라고 하겠다.

특히 근대 한국의 리얼리즘문학은 후발주의자로서 서구문학에 대한 답습이자, 그 형성기의 시대적 특수성으로하여 예술적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본질주의로 접근하다보면 진정한 자연주의, 진정한 리얼리즘이 아니라는 주장만 앞세우게 된다. 한국적 리얼리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시기 문인들의 선택, 즉 한국적 리얼리즘이 탄생할 수 있는 역사적 여건을 찾아보고 그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라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에서의 ‘리얼리즘’은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담론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후진국(遲發展國家) 지식인들의 ‘불안(焦燥)’에서 빛

10) 崔昌笏, 같은 책, 33~35쪽.

11) 崔昌笏, 같은 책, 34쪽.

어진 ‘서양주의(西方主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²⁾면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제3세계국가의 저항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한국의 서양주의의 비판, 리얼리즘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재해석, 그리고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책에서 근대 지식인들의 “불안(焦慮)”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1910년에서 1928년 사이, 한국 리얼리즘문학이 ‘자연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요원인은 무엇일까? 이 시기 문학비평은 ‘자연주의’를 제창하지도 않고 ‘자연주의’에 대한 담론 역시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 한국문학의 근대적 전환과정은 “신/구(新/舊)”이념을 서사 전략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후진국의 근대성 그리고 근대성에 대한 ‘불안’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¹³⁾

저자는 “신/구”의 대립구조로 이념과 사회를 해석하는 방식을 후진국이 자신의 “근대화를 정당화하는 유력한 논리적 수사방식”으로서 보고 “신소설”, “신체서” 등 근대문학 초기 문학형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여겼다. 저자는 이러한 “신/구”의 대립을 발전론적인 시간이념과 연관 지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발전과 이상이며 일종의 강력한 역사의식을 동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리얼리즘 문예사조의 수용과정을 후진국 지식인들이 서양의 담론을 받아들이고 현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는 한국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역사의식, ‘불안’, 그리고 급진적인 사명감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많은 문인들이 리얼리즘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리얼리즘과 자연주의를 완전히 동일시했던 것도 급진적인 사명감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리얼리즘과 자연주의 혼용이 아니라, 졸라의 자연주의로 리얼리즘의 의미를 파악했

12) 崔昌笏, 같은 책, 40~41쪽.

13) 崔昌笏, 같은 책, 87~88쪽.

던 역사현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문학사조는 조선의 재래적 담론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침신한, 그리고 체계성이라는 권위성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문인들이 근대문학으로서의 지향을 표현해주는 담론적 장치로 선택될 수 있었다. 리얼리즘은 바로 이러한 지식체계의 일환으로서 보다 보아내기 쉬운 사조적 외연과 내포를 지녔던 ‘자연주의’라는 용어로 형성되었다.¹⁴⁾

리얼리즘이 자연주의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유도 급진적 발전론에 의해 비롯된 ‘불안’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권위성을 지닌 문학이론을 급히 수용하려고만 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주의는 한국에서 단지 하나의 기표(signifier)로 되어 서술구조의 담론요소¹⁵⁾로만 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상징주의, 신 낭만주의, 표현주의 등 문예사조도 단지 한국문학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기표적 추동력(虛在推動力)”¹⁶⁾에 불과했고 이 역시 당시 문인들의 “결과로서의 근대성”을 갈구했던 ‘불안’을 체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예사조들은 대부분 구체적 문학실천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광수의 문학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문학 독립성에 대한 인식, 문학의 진실성에 대한 추구가 역사의식과 결합하여 문학의 현실성에 대한 추구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리얼리즘 문학관을 형성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이광수의 문학자율론은 정감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문학의 영원성, 천재론 등 비역사적이고 외재적인 논의로 흘러버림으로써 그 논리의 중심은 리얼리즘적 문학관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즉 이광수 비평에서 진실성 논의는 극히 단편적이고 분산적일 수밖에 없었다.

14) 崔昌笏, 같은 책, 290쪽.

15) 崔昌笏, 같은 책, 128쪽.

16) 崔昌笏, 같은 책, 104쪽.

둘째, 이광수는 비록 “최정(最正)”, “최정(最精)”이나 “여실함”, “현실적”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급히 신문학을 정립하려는 “불안”한 발화환경에서 제기된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이론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였다.¹⁷⁾

이광수의 주장들은 전통문학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기에 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인식을 담고 있다. 문학이 자율성을 갖고 있기에 진실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논리는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문학적 미학적 이론정립으로까지 가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 역시 저자는 급히 신문학을 정립하려는 ‘불안’한 발화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신문학’ 시기의 문학자율론과 공리주의 문학관, 진실성 탐구와 주관적 경향, 그리고 초기 프로문학의 문학수법을 강조하는 경향과 계급의식에 초점을 둔 경향 등과 같은 부동한 관념들이 한 작가 혹은 동일한 논리체계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시기 지식인들의 급진적 사명감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였다.¹⁸⁾ 서양의 지식체계에서 서로 대립되는 항들이 한국 지식인들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인해 그 논리적 충돌이 은폐되었지만 시대적 환경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이러한 담론들은 충격을 받아 자아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28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던 리얼리즘에 대한 담론들은 그 후의 한국적 리얼리즘이론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리얼리즘이 정착되고 발전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한국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저자는 후진국의 리얼리즘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한국 지식인들만의 독특한 시대적 대응방식으로서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¹⁹⁾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동안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어왔다. 중국의 근대화진척에 대한 논의도 그동안 “서양 중심론”, “중국문화 우월론”을 겪으면서 학자의 개인적 감정이 이성적 사고를 뛰

17) 최창록, 같은 책, 176쪽.

18) 최창록, 같은 책, 290쪽.

19) 최창록, 같은 책, 292~293쪽.

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중국학계에서는 근래에 탈경계를 내세워 주변국가와의 문학교류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기성의 틀을 벗어난 논의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 중국문학 근대화에 있어 ‘불안’과 초조감에서 기인한 지식인들의 역사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²⁰⁾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최창득의 『리얼리즘과 한국 근대문학』은 이와 같은 문학사의 반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된 작업이며 시기적으로도 2000년 초반에 완성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앞선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3. 프로문학 문예비평의 이론적 접근

그동안 한국에서의 프로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이해방식을 넘어서기 실로 어려웠다고 본다. 조직운동의 산물로 보고 있는 프로문학을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결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문학론으로 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예의 목적의식론’을 내세운 1차 방향전환과 ‘문예의 불세위키화’를 내세운 2차 방향전환을 거치며 프로문학이 이념적, 미학적으로 완성되어 갔다는 한국문학사의 서사는 조직운동으로서 프로문학을 이해하는 대표적 통로가 되었고 사회주의 구체적 형태로 맑스 레닌주의, 그리고 코민테른의 교의를 참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문학에 대한 이해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왔었다.²¹⁾ 이와 같은 고정적인 사고패턴으로 말미암아 프로문학

20) 錢超英, 「自我、他者與身份焦慮——論澳大利亞新華人文學及其文化意義」, 『暨南學報』, 2000.07; 趙樹勤, 「當代女性話語權力的欲求與焦慮」,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1.04; 張弛, 「中國文化的艱難現代化: “現代”焦慮視點中的20世紀初期中國文化演進」, 西北大學出版社, 2011.10; 李偉昉, 「方法的焦慮: 比較文學可比性及其方法論構建」, 『中國比較文學』, 2021.07.

21) 崔並求, 「1920년대 프로문학의 형성과정과 ‘미적 공통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쪽.

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크게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서에는 프로문학의 발화환경(語境), 자연주의 담론, 그리고 프로문학의 탄생에서부터 그 발전과정에서 문인들의 리얼리즘 비평담론에 이르기까지, 프로문학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고찰 역시 어떠한 이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방식을 취하여 그 시기 프로문학의 자연주의 담론을 철저히 고증하고 본인의 견해를 밝혀 나갔다. 그는 선행연구에서 자연주의는 1920년대 초기까지 역사적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여 1920년대 중후기의 자연주의 문학비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선입견에 불구하고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자연주의가 1922년 이후 프로문학 비평에서 어떠한 담론적 장치로 이용되었는지, 어떻게 창작원리로 한국문인들에게 다가왔으며 어떠한 역사적 추동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925년 말에 이르면 자연주의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변모를 가져온다.

우선,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자연주의를 문예형식으로 치부하며 자연주의 예술형식은 이미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니 프로문학의 실천방향에 맞는 표현형식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박영희가 솔선하였다.…… 자연주의 묘사방법은 프로문학의 새로운 예술형식을 탐구하는 “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프로문학은 예전의 문학형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연주의를 참조물로 부정(否定)을 합리화하는 담론장치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프로문학비평에서의 자연주의 관념에 대한 변화는 자연주의 문학정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²²⁾

자연주의가 역사적인 역할을 다 한 듯 하지만, 실제로 1925년 이후 프로문학에 의해서 꾸준히 문학형식을 담론하는 유효한 담론방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시기 프로문학이 자연주의를 “타자”로 설정하여 비평

22) 崔昌笏, 같은 책, 115~118쪽.

의 서술장치로 이용하고 프로문학의 정당성을 증명해 갔다고 주장한다. 비록 부정적인 실례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학형식을 담론하는 참조물이라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근대 지식인들이 맑스주의를 이론적 무기로 찾게 된 역사적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친다. 그는 근대화 진척에 있어서 수동적인 근대화를 비판하는 한편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이중임무를 떠안아야 되는 것이 이 시기 제3세계국가 지식인들의 보편적 시대적 과제였다면서, 맑스주의는 근대화에 대한 일종의 반성으로서 단일한 방식의 근대화, 그리고 근대화에 대한 맹목적이고 낙관적 태도를 비평할 수 있기에 한국의 프로문학문인들이 이를 한국사회의 근대성 전환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다.²³⁾ 우리가 현대의 사회이념이 아닌 역사적 사고로 접근하여 프로문학을 근대 지식인들의 힘겨운 역사적 선택이라고 재조명한다면 프로문학의 담론 역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책에서는 프로문학의 형성과 리얼리즘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프로문학의 문학 목적론, 문학인식이 어떻게 한국적 리얼리즘문학관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들이 인식한 문학기치와 계급적 구도가 리얼리즘문학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친다. 이를 위해 크게 “신경향파문학의 문학본체론”, “상황인식과 현실관”, “문학 가치의 이원론적 가치설정”, “생활분열론”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초기 프로문학비평은 문학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였을까? 저자는 문학본체론에 대한 인식과 관념이 문예사조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 동기가 될 수 있기에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는 초기 프로문학 즉 신경향파문학비평의 본체론적 인식은 “영성(靈性)”에 있다면서 이는 신경향파문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강력한 이론좌표가 되었다고 한다.

김기진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사회적 계급적 혁명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23) 崔昌笏, 같은 책, 210~211쪽.

분히 유심(唯心)론적인 “영성론”과 “생의 본연론”을 제창했던 것은 그 나름의 이론적 전통과 철학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성론이나 “생의 본연론”의 생성은 첫째로 궁극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하는 이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성”이란 결국 인간의 영성, 즉 인간성을 지시하는 개념이고 “생의 본연” 역시 인간의 본연을 지시하는 개념인 까닭이다.²⁴⁾

최창복은 김기진이 “영성론”이나 “생의 본연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한국근대문학비평이 초기부터 “사람”을 핵심적 범주에 넣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 시기 많은 문인들이 “사람”에 집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소외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으며 “영성론” 역시 이러한 선명한 가치지향적 동기와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간성 소외의 추상적 특징이 한국 초기 프로문학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저자는 초기 프로문학비평에서의 추상성이 프로문학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서 이러한 추상적 논의는 그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사회현실의 구체적 특징과 근본적 모순을 포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은 추상적 상상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에 김기진은 미학적 이론에 있어서도 결국 “감각의 혁명”이라는 추상적인 슬로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²⁵⁾ 실천적인 인간이 아닌 추상적이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이며 내재적인 인간으로 귀결되다보니 “감각의 혁명”은 역사성과는 단절된 논리의 비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경향파문학에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전망의 부재”, “전망의 과장”으로 해석하거나²⁶⁾ 현실에 대한 논리적 파악보다는 감정적 대응태도를 앞세웠던 결과로 보는 한국학자들의 견해²⁷⁾와 달리 저자는 인간본연의

24) 崔昌笏, 같은 책, 214쪽.

25) 崔昌笏, 같은 책, 222~224쪽.

26) 정호웅, 『경향소설의 변모과정』,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92년 재판, 46쪽.

27) 홍정선, 『신경향파 비평에 나타난 <생활문학>의 변천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년, 46쪽.

해방이라는 신경향과 문학목적론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⁸⁾

저자는 “영성론”이 초기 프로문학을 이끌어가는 이론적 근거였다면 프로문학을 추동하는 힘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우환, 그리고 역사적 사명감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문학비평에서 “생활”이라는 용어를 프로문학의 시대적 합리성을 증명하는 담화장치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문예발전법칙을 해석하는데 이용된 것이지, 문학의 미학창작원리에 대한 해석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경향과문학비평이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사회-생활-예술” 패턴의 수동적인 “반영론(反映論)”에 이르게 되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²⁹⁾에 대해서도 초기 프로문학비평에서의 “생활”의 담론이 “사회-생활-예술”이라는 논리적 방식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생활-사명감-프로문학”, 혹은 “생활의 의식에 주는 결정적 역할-의식이 문예에 끼치는 결정적 역할” 등 더욱 중요한 논리적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³⁰⁾

초기 프로문학은 이러한 현실인식의 추구로 인해 “힘”의 문학 등 추상적이고 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학적 특징을 보이는 한편, 또한 자신이 처한 역사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문학성과 사회공리성의 괴리가 생겼으며, 문학가치에 대해서도 이원론(二元論)적 판단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나오는 말

동양에서의 서양사조의 수용은 그 자국의 역사적 현실과 필요성에 의해서 변용되고 첨가되어 변혁을 거치게 된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체의 현실적, 문화적 수으로 그 수용양상도 다르게 체현되는 법이다.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있고 똑같이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아

28) 崔昌笏, 같은 책, 230쪽.

29) 柳文善, 「신경향과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43~149쪽.

30) 崔昌笏, 같은 책, 236쪽.

픈 역사를 겪어왔던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얼리즘 담론에 있어도 중국, 한국, 일본의 수용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를 시도한다. 일례로 중국의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진독수(陳獨秀)의 경우, 리얼리즘과 자연주의를 유럽과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문학이라고 판단하여 고전주의와 이상주의(즉 낭만주의) 단계에서부터 리얼리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제창하였는데 이는 그가 문학에 대한 선협론적 인식³¹⁾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한국의 경우, 자연주의와 리얼리즘이 겪어야 되는 단계적 발전을 거의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1910년대 일본의 무단통치와 문학창작을 거의 할 수 없었던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³²⁾ 이광수의 “천재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진독수와 비교하면서 그 경향의 차이가 초래된 이유를 사회적 배경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초기 프로문학자들의 인간성 소외관념과 맑스의 초기 사상의 공통성에 대한 논의였다. 1927년에 부분적으로 발표되고 1932년에 전문이 공개된 맑스의 친필원고 『1844년 경제학, 철학 원고』가 초기 프로문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본질문제와 소외이론과 같은 추상적인 인식이 한국 초기 프로문학의 추상성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³³⁾ 다만 맑스사상은 발전하여 유물론적사관을 이루었지만 한국 초기 프로문학의 경우 그 추상성으로 하여 역사적 의의와 현실사회의 실질적 모순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최창록은 현 시점에서 발전론적 관점으로 그 시기 리얼리즘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보다 그 시기 문학비평의 근거와 동기가 모두 문인들의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역사주의적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자면 “후진국의 리얼리즘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고 리얼리즘은 하나의 개념이 아닌 역사적 실천이자 문학행위로서 부동한 주체가 부동한 입장에 서서 각자의 문학주장과 시대적 고민을 표현한

31) Marian Galik, 『중국현대문학비평발생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1997년, 22쪽.

32) 崔昌笏, 같은 책, 112쪽.

33) 崔昌笏, 같은 책, 220~221쪽.

문학현장이며 자신의 서술의 합리화와 권위를 입증하려는 담론의 쟁탈현장이었다³⁴⁾”는 사고방식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논의의 중심이 리얼리즘 문학비평의 발전맥락에 대한 검토에 있다 보니 문학작품의 창작, 문단의 상황, 사회현실과 같은 다양한 측면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질주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2018년의 논문에서도 이어지는데 이 논문에서도 저자는 리얼리즘이 기성의 담론에서 벗어나려면 네오마르크시즘에 입각하여 후진국의 문화발전 역사적 현장과 맥락을 자세히 살펴야 되고, 리얼리즘을 현대성의 산물로 보고 현대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석을 해야만 후진국의 리얼리즘의 특수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³⁵⁾ 역사적 현장에서 한국문학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그 후의 중한 문학 연구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중국 망명 한국 문인이나 중국체험 한국문인들의 문학연구, 한국에서의 중국문학 수용연구들은 모두 단순한 고증연구나 새 자료소개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한국문학의 상관성에 입각하여 지식생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내부의 역동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주요섭의 중국체험과 중국의 근대성 인식에 관한 논의,³⁶⁾ 1930년대 중반 이주민의 수난과 저항을 담아낸 강경애와 뤼빈지의 소설 비교를 통한 근대적 각성의 담론,³⁷⁾ 근대 한국의 루쉰(魯迅) 수용과 번역의 양상과 그 매개자들의 계보적 특징을 파악한 연구,³⁸⁾ 근대 상하이체험 한국문인 기행문에서 체현된 여성인식, 그리고 그 주변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결핍과 모순을 지닌 근대성에 대한 담론,³⁹⁾ 한국

34) 崔昌笏, 같은 책, 291쪽.

35) 崔昌笏, 『后發展國家現實主義文學研究與反本質主義』, 『東北師大學報』, 2018年 第3期, 101~106쪽.

36) 崔昌笏·王孟青, 『抗爭與治癒: 朱耀燮의中國體驗與跨界敘事』, 『東疆學刊』, 2018年 第3期, 68~74쪽.

37) 崔昌笏, 馮悅, 『일제 강점기 한·중 이주민의 ‘만주’ 체험과 근대적 각성-강경애 『소금』과 뤼빈지 『국경선에서』의 비교문학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03, 257~286쪽.

38) 崔昌笏, 『근대 한국의 루쉰 수용과 번역-지식생산의 장소성과 중국발 루쉰』, 『사이間SAI』 30, 2021, 59~94쪽.

39) 崔昌笏·진화연, 『식민지 지식인의 판타지로서의 성, 사랑과 여성-근대 한국인의 상해 기행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8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03, 31~55쪽.

최초의 중국근대문학 작품집 『중국단편소설집』(개벽사, 1929.1.25)의 번역자를 밝히는 실증작업과 번역자가 신분을 숨겨야 했던 역사적 이유와 노력, 그리고 중국 언론인과 문단과의 연동에 대한 논의⁴⁰⁾ 등은 모두 연구의 초점을 근대성 탐구, 그리고 동아시아가 겪었던 역사적 현장과 그 교훈을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에서의 한국서사 연구⁴¹⁾도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종일관 중한 문인들의 문화융합, 운명공동체인식, 동아시아상상의 진면모를 밝히려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역사적 현장의 복원과 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 문예 간행물의 역사적 발전궤적과 현지화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오늘날 까지 이어온 한국문학의 지대한 영향력과 사회적 기능에도 주목을 하였다.⁴²⁾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로서 지나긴 역사를 함께 해 왔었지만 오늘날 여러모로 민감한 상황에 이르면서 그 연결고리와 소통에 대한 역사적 발견보다는 차이와 부정적 이미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현 시점에서, 역사적 현장에 주목하고 중국과 한국의 연대와 상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최창륙의 연구는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이 아닐까 싶다.

40) 崔昌笏·趙穎秋, 「개벽사 『중국단편소설집』번역자 소고」, 『대동문화연구』 11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12, 259~294쪽.

41) 崔昌笏, 「부나이푸 한국인 서사의 의미 : 『황야의 사나이』에서 보이는 극지상상과 문화융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403~434쪽. 이 논문은 한국광복군 총참모장 이범석을 모델로 한 부나이푸의 장편소설 『황야의 사나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중국작가의 한국인서사와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2) 崔昌笏·王孟青, 「場域理論視域下的韓國文藝期刊流變史」, 『東疆學刊』, 2022年 第2期, 91~98쪽.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2010.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_____,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윤식·정호웅,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 柳文善, 『신경향파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孫 歌, 『尋找他者』, 貴州人民出版社, 2019.
- _____, 『遭遇他者』, 北京聯合出版有限公司, 2020.
- 張 弛, 『中國文化的艱難現代化：“現代”焦慮視點中的20世紀初期中國文化演進』, 西北大學出版社, 2011.
- 陳平原, 『文學史的形成與建構』, 廣西教育出版社, 1999.
- 崔竝求, 『1920년대 프로문학의 형성과정과 '미적 공통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崔昌笏, 『現實主義與朝鮮現代文學』, 南京大學出版社, 2011.
- Edward W. Said, 李琨 역, 『文化與帝國主義』, 三聯書店, 2016.
- Fredric Jameson, 『后現代主義與文化理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中國學者眼中的韓國現實主義誕生與發展

—以崔昌笏的《現實主義與韓國現代文學》為例—

朴香蘭*

崔昌笏的著作《現實主義和朝鮮現代文學》源於對本質主義的反省。這是在國際人文學科領域主張解體和“反省”，東亞文化圈提出打破藩籬、提出“自我”與“他者”溝通的學術氛圍下，中國學界出現的最具代表性的韓國學研究成果。崔昌笏將韓國現實主義文學觀念的形成和發展視為與朝鮮文學現代性轉換相關的時代主題，考察了朝鮮文學現代性轉換這一大系統是如何決定這一時期文學觀念的現實主義傾向，以及賦予了這一時期文學觀念怎樣的“朝鮮化”理論特徵和具體內涵。因此，與之前通過“批判現實主義”、“社會主義現實主義”等用詞設定現實主義各階段的先行研究不同，崔昌笏將1910年代至1928年的現實主義文學批評視為有機統一體，從歷史上考察了該時期韓國現代文學的實踐過程。為了擺脫本質主義思考模式，作者引入了包括蜜雪兒·福柯的敘事話語理論在內的後現代主義批評理論、新馬克思主義理論、後殖民主義理論。這與21世紀初東亞學界關注與周邊國家文學交流的學術氛圍一脈相承。在無產階級文學研究方面，作者也不是單純地將其視為組織運動的產物，而是通過無產階級文學的語境、自然主義敘事話語，以及從無產階級文學的誕生到其發展過程都進行了全面的分析，並對中國、韓國、日本的接受情況進行了具體的比較。崔昌笏這種擺脫本質主義的嘗試和實踐在最近的研究中也在延續。他不止於單純的資料介紹或考證研究，而是立足於中國和韓國文學的關聯性，力圖揭示圍繞知識生產的東亞內部動態關係，在中國文學中的韓國敘事研究方面也始終致力於闡釋中韓文人的文化融合、命運共同體認識，以及東亞想像的真實面貌。

* Faculty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of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关键词] 崔昌旂, 現實主義, 現代文學, 自然主義